

여대생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

신 동 주[‡]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여대생 391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정상체중과 저체중 361명을 선발하고 내현적 자기에 척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신체 만족도 도구, 마르고자 하는 욕구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을 가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신체상 만족도와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과 과민/취약성이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통해서 내현적 자기에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를 통해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의 매개를 거쳐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안 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들이 언급되었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 마르고자 하는 욕구, 다이어트, 경로분석

[†] 본 연구는 후기필자(정남운)의 지도로 선기필자(신동주)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2006)를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동주, 가톨릭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3-1번지 전화 010-9065-5309 E-mail : joo629@hanmail.net

현대 사회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과거의 풍만함과 여유 있는 몸에서 날씬함과 마른 신체로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날씬해지고 더 마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 사회는 다이어트가 만연화 되어 있는 풍토로 다이어트 정보에 대한 홍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그런 다이어트의 실천이 그 성공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이어트의 계속된 실패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다시 폭식을 하는 등 악순환을 겪게 된다(김희영, 1998). 특히 이런 마른 체형에 대한 선호로 과체중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들도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를 보면 비만집단의 83.3%, 정상체중 집단의 60.5%, 저체중 집단의 53.8%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박혜순, 송정자, 이현옥, 1997)되었다.

이렇게 정상체중, 저체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날씬해지기를 열망하여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다이어트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 행동에 옮긴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Storz & Greene, 1983).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험이 있다. 섭식 절제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우울해 하고(한오수, 유희정, 1991) 경직된 다이어트 태도는 폭식으로 연결되며(김교현, 1999), 지나친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폭식행동과 섭식장애의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이현정, 2001).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

는 식이절제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가장 잘 판별해 주는 변인은 마르고 싶은 욕구와 체형에 대한 불만이고(한오수, 유희정, 1991), 폭식 행동 집단과 정상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변인 또한 마르고 싶은 욕구이다(안소연, 오경자,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섭식장애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지나친 다이어트에 이르게 하는 마르고 싶은 욕구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좀 더 근본적인 성격구조로서 내현적 자기가 이들 변인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볼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자기애적 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기과대화나 웅대함과 같은 외현적 자기애의 주된 특성과 함께 두려움과 취약성, 우울이나 열등감과 같은 내현적 자기애의 주된 특성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기애는 '양가적인 자존감과 병리적인 웅대성'을 핵심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현대의 많은 이론과 연구에서는 자기애를 두 가지 유형으로 묘사해 왔다(Akhtar & Tomson, 1982; Cooper, 1981, 1998; Gabbard, 1989, 1998; Gersten, 1991; Kohut, 1971; Masterson, 1993; Rovik, 2001; Wink, 1996). 한 집단은 웅대함으로 가득 찬 환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하고 소심하며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다른 집단은 공공연하게 자신의 웅대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Wink & Gough, 1990).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 중에서 내현적 자기애

만을 변인으로 삼아 연구 할 것이다.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경험 추구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리더쉽을 갖는 특성을 보이며(Raskin & Novacek, 1989),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부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데 반해 외현적 자기에 집단은 긍정적 자기평가를 보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지 않는(박세란, 2004) 등 내현적 자기애자들에 비해 적응적인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내현적 자기에에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핵심 특징으로 갖는다. 내현적 자기애자의 현상적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성격적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늘 촉각을 곤두세워 상처입기가 쉬우며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 쉬운 특성을 가졌다. 이는 얼핏 자기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나는 상처 받아서는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밉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특성이다(권석만, 한수정, 2000).

내현적 자기에에는 우울하고 불안하며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는 등의 부적응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이 더 클 것이고, 따라서 이들을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에의 두 유형 중에서 내현적 자기에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살펴 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은 사

회불안의 중요한 인지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Marks & Gelder, 1966)이며,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으나 그러한 인상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능력에 불안을 느낄 때 경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부적절하거나 부족하게 보여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정윤, 199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승인에 대한 요구, 과잉불안 염려, 개인적 완벽성 기준에 의해 가장 잘 예견되는 것으로 보고된다(Deffenbacher, 1986; Glass & Furlong, 1990). 이는 내현적 자기에가 가지는 특징인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대해 민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남운(2001)은 외현적인 자기에 성향자와 달리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부정적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늘 과민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았다.

박세란(2004)의 연구를 보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긍정 사건에 대해 내부귀인하는 양상으로 자기고양귀인을 하였고,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부정 사건에 대해 외부귀인하는 양상으로 방어적 귀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적 자기에집단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지 않았던 반면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인숙(2002)과 한혜립(2003)은 외현적 자기에는 사회불안에 대해 부적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는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

이 부정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Kohut(1971, 1977)의 이론과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응적인 자기애는 불안과 부정방향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와 함께 정미정과 정현희(2002)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기개념과 인정에 대한 요구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자기개념과 인정에 대한 요구의 특성을 가진 자기애가 사회불안의 중요한 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될 수 있다.

또한, 사회불안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비교는 다식증을 예언하는데 반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예언하고(Gilbert & Meyer, 2003), 신체상 불만족과 불안한 섭식 태도 또한 예언한다고 나타났다(Vander Wal & Thomas, 2004). 이 밖에 강상현(1999)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기 마련이고, 신체와는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바꿔버려서 결국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지각과 평가의 원인을 전부 자신이 지각한 부정적인 신체로 귀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서로 상관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또한 이렇게 외모에 대한 문제로 인해 상담을 찾는 경우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내적인 심상과 그 상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의 총합(Power,

Schulman, Gleghorn, & Prange, 1987)을 신체상으로 정의하였고, 이런 신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 불만족 변인을 들 수 있다. 이는 지각된 신체 크기와 이상적인 신체 크기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자신의 신체상을 크게 측정하는 것은 체질량지수, 비정상적인 섭식 태도와 함께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고(Gila, Castro, Cesena, & Toro, 2005),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안함을 갖는 것, 즉 '사회적 체형불안(social physique anxiety)'은 신체상 불만족과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예언한다(Thompson & Chad, 2002).

이 밖에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연구되는 '마르고자 하는 욕구'는 섭식절제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판별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한오수, 유희정, 1991) 미용지향적인 관점에서 체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실제의 노력과 그런 노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체중을 감소시키고 더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신체상,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하여 이임순(1997)의 연구를 살펴보면 절제 섭식군은 마르고 싶은 욕구 및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Story 등(1991)은 34,000명의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성적인 다이어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체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호주의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상의 왜곡을 보이는 사람 중 절반가량이 만성적인 다이어트 행위보다 위험한 상태로 여겨지는 섭식행동의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Grigg, Bowman, & Redman,

1996). 우리나라에서도 과체중이라고 인식할수록 다이어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정근백, 1995). 또한, Brown 등(1989)과 Allgood-merton 등(1990)은 청소년들은 신체상 왜곡이 심할수록 다이어트 행위를 더 할 뿐만 아니라, 신체상 왜곡은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자기애의 적응적이고 비적응적인 형태는 젊은 여성의 신체 존중감과 상호작용한다. 적응적인 자기애와 신체 존중감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비적응적인 자기애가 증가하면서 적응적인 자기애와 신체 존중감 사이의 정적관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Davis, Claridge, & Cerullo, 1997). 이밖에, 김해정(2004)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 이미지 중요도, 신체중요도와 함께 신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강상현(1999)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날씬한 신체를 과시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 과정에서 타인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결국 자신이 능력 있는 유능한 여성이 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타인에게 찬사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에 의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욕구는 자기애의 특성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섭식장애 환자의 자기애 점수는 통계 집단의 자기애 점수보다 일관되게 높게 보고되고(Steiger, Jabalpurwala, Champagne, & Stotland, 1997), 정상체중 조건에서 비적응적인 자기애는 체중물두에 대해 정적방향으로 예언해주며, 적응적인 자기애는 정상체중 조건에서 체중물두에 대해 부적방향으로 예언해주고 있다(Dav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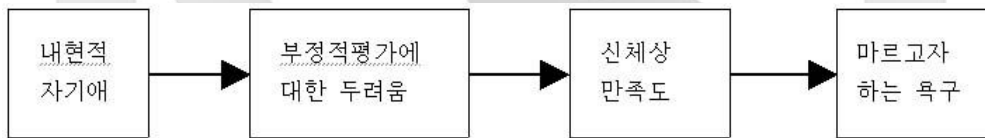


그림 1.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가설적 모델(기본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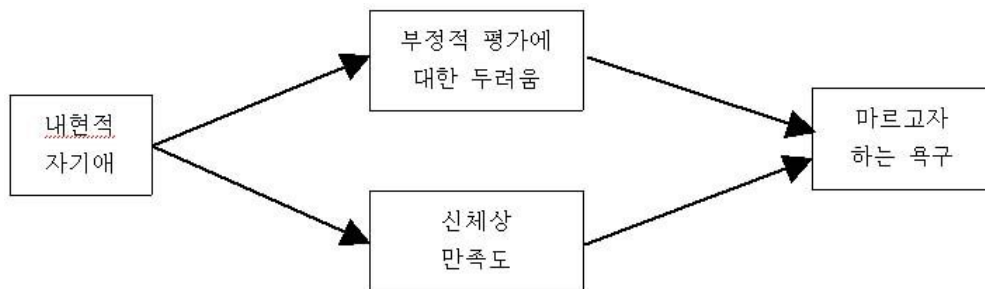


그림 2.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가설적 모델(대안모형)

Claridge, & Cerullo, 1997).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외모, 체중, 체형에 불만족하는 경우 자신의 모든 문제를 체중과 체형에 귀인하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체중과 체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밖에 대인관계 문제, 성격 문제 등에 대해서 다루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무리한 다이어트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어떤 성격적 요인이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켜 다이어트에 몰두하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성격적 요인으로서 본 연구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취약성을 가지며, 늘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거대자기 환상을 갖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를 주된 독립변인으로 연구하였고, 이 밖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다음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설정한 연구 가설이다.

가설 1.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신체상 만족도가 낮을수록 마르고자 하는 욕구는 높을 것이다.

가설 2.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일정한 경로를 보일 것이다.

2-1. 그림 1의 기본모형과 같이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 신체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다시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그림 2의 대안모형과 같이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는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법

참여자

수도권 소재의 9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의 자료와 과체중 범위에 해당하는 2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정상체중과 저체중인 361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체중에 대한 기준은 체질량 지수(BMI)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을 응해준 여대생들의 BMI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여대생들의 BMI 분포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무응답	합계
평균	17.64	20.26	23.99		
표준편차	.78	1.19	.62		
인원수(명)	83	278	22	8	391
비율(%)	21.23	71.10	5.63	2.05	100

도구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2002)가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hk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는(2002)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 요인과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 3개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척도 개발자가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0이며, 강연우(2004)는 .89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7로 나타났다.

마르고자 하는 욕구(Drive for Thinness)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Garner, Olstead와 Polivy(1983)가 고안한 ‘다차원적 섭식 태도 검사(Multidimensional Eating Disorder Inventory : EDI)’를 한오수와 유희정(1991)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및 신경성 폭식증과 관련된 행동 및 태도 차원상의 측정치를 얻기 위하여 개발된 검사로, 모두 8가지 요인의 6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들 중 마르고자 하는 욕구(7문항)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89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FNE)

Watson과 Freind(1969)가 개발한 3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Leary(1983)가 전체 점수와 .50이상 상관이 되는 12문항만 뽑아서 단축형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한국판 FNE를 사용하였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으며, 4주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 α =.86으로 나타났다.

신체 만족도 도구(Body Cathexis Scale; BCS)

Secord와 Jourad(1953)가 개발한 신체상 척도(Body Cathexis Scale; BCS)는 총 47문항으로, 1번에서 35번까지는 신체부위와 관련된 신체상을 측정하고 36번에서 47번문항은 신체 기능과 관련된 신체상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불만’은 1점, ‘불만’은 2점, ‘보통’은 3점, ‘만족’은 4점, ‘매우 만족’은 5점으로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수를 산출한다. 이 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신체상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승교(1998)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체부위와 관련된 신체상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Cronbach α =.93으로 나타났다.

절차 및 분석방법

상관분석,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네 가지 변인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12.0을 사용하였다.

경로분석

각 변인들의 경로의 적절성과 적합도를 알기 위해 경로분석을 통해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Amos version 4.0을 사용하였다.

결 과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 마르고자 하는 욕구의 상관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 39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에서 정상체중과 저체중

에 속하는 361명을 선발하여 분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 및 마르고자 하는 욕구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상관을 구하였다. 다음 표 2는 네 가지의 각 변인들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마르고자 하는 욕구는 신체상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내현적 자기애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역시 신체상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내현적 자기애(CNS)의 하위요인과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표 3은 내현적 자기애(CNS)와 내현적 자기애(CNS)의 각 하위요인이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보이는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표 2. 전체 변인의 상관관계

	마르고자 하는 욕구	신체상 만족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현적 자기애
마르고자 하는 욕구	1.00			
신체상 만족도	-.346 **	1.0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86 **	-.225 **	1.00	
내현적 자기애	.221 **	-.313 **	.457 **	1.00

* $p < .05$, ** $p < .01$

표 3. CNS와 CNS 하위요인과 마르고자 하는 욕구의 상관관계

	마르고자 하는 욕구	CNS 총점	목표 불안정성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 자기 중심성	과민/ 취약성	소심/ 자신감 부족
마르고자 하는 욕구	1.00	.221 **	.110 *	.173 **	.096	.249 **	.099

* $p < .05$, ** $p < .01$

CNS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CNS 총합과 목표 불안정성, 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및 과민 취약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CNS 하위요인 중에서 착취/자기중심성과 소심/자신감 부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와 마르고자 하는 욕구간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 중에서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예측하는 변인을 찾기 위해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마르고자 하는 욕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신체상 만족도로 설명변량은 11.7%였다, $F=48.787$, $p<.001$. 그 다음으로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설명력을 갖는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으로 신체상 만족도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의 두 변인이 갖는 설명변량은 13.9%였다, $F=9.979$, $p<.01$. 이는 신체상 만족도만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예측할 때보다 2.4% 늘어난 설명력을 보여준다.

경로 분석 / 모형 검증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χ^2 검증과 여러 가지 부합도 지수(fit index)들이 있다. 부합도 지수는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부합도 지수는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동시에 간단한 모형을 선호해야한다.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부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먼저, χ^2 검증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모형은 완벽하다는 것이 영가설의 내용이다. 이 방법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χ^2 값이 표본 크기의 영향에 민감하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표본의 영향을 덜 받는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등을 사용했다. AIC는 0에 가까울수록, CFI와 NF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이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response fit),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표 4.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와 마르고자 하는 욕구간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Beta	R^2	R^2 변화량F	F변화량
마르고자 하는 욕구	신체상 만족도	-.346	.117	.120	48.787 ***
	신체상 만족도	-.338			
	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115	.139	.024	9.979 **

* $p<.05$, ** $p<.01$, *** $p<.001$,

기본모형 검증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와 마르고자 하는 욕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하였던 기본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본 모형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chi^2(3, N=361)=29.663, p=.00, NFI=.834, CFI=.845, RMSEA=.157$ 이 산출되었다. 기본 모형에서 가정한 세 경로 중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181, p<.001$)는 적절하였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신체상 만족도로 가는 경로($\beta=-.760, p<.001$)도 유의미 하였다. 또한,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로 가는 경로($\beta=-.122, p<.001$)도 적절하였으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기본 모형은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기본 모형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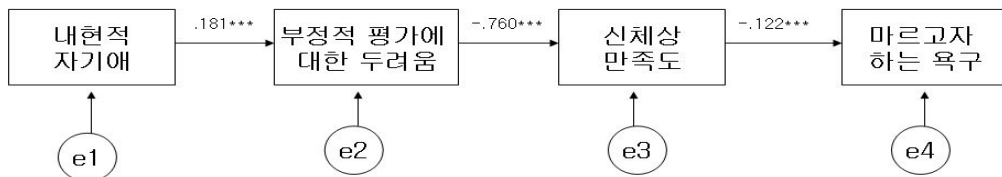
대안모형 검증

연구문제에 대한 대안 모형을 검증하였다. 대안 모형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와 상관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 각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는 각각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네 변인을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hi^2(2, N=361)=6.001, p=.05, NFI=.966, CFI=.977, RMSEA=.075$ 로 대안모형은 꽤 좋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다.

대안 모형에서 가정한 네 경로 중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181, p<.001$)는 적절하였고, 내현적 자기애가 신체상 만족도로 가는 경로($\beta=-.420, p<.001$)도 유의미 하였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주는 경로($\beta=.136, p<.05$)도 적절하였고,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로 가는 경로($\beta=-.113, p<.001$)도 적절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에서 가정한 기본 모형에 비



* $p<.05$, ** $p<.01$, *** $p<.001$

모형	df	χ^2	P	CFI	NFI	RMSEA
기본모형	3	29.663	.00	.845	.834	.157

그림 3. 기본 모형 검증 결과

여대생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해 대안 모형이 더 자료에 부합하고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대안 모형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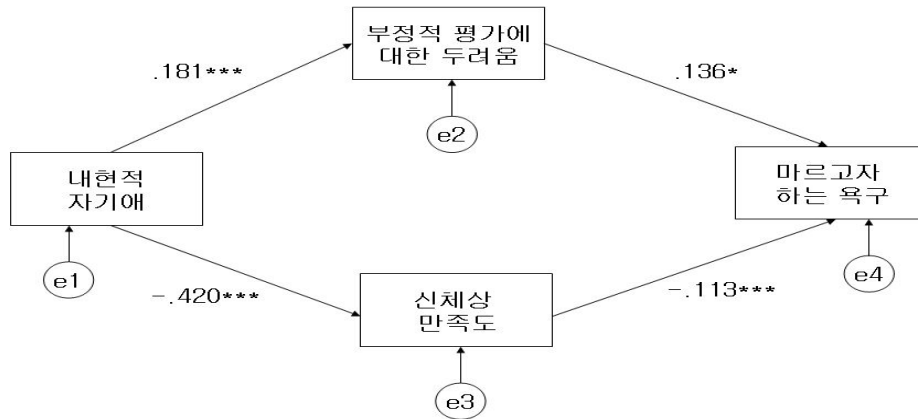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모형의 AIC 비교와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기본모형의 AIC=43.663, 대안모형의 AIC=22.001로 산출되었다. 두 모형 중 더 작은 크기의 AIC를 갖는 대안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Bentler와 Bonett(1980)의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통해서 대안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의 카이제곱 차이는

23.662(29.663-6.001)가 자유도 1(3-2)에 비해서 커 대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의 카이제곱차이와 AIC를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391명의 설문지 자료 분석에서 정상체중, 저체중에 속하는 92.33%에 해당하는 36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정상체중과 저체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은 건강과 미



* $p < .05$, ** $p < .01$, *** $p < .001$

모형	df	χ^2	P	CFI	NFI	RMSEA
대안모형	2	6.001	.05	.977	.966	.075

그림 4. 대안 모형 검증 결과

표 5. 기본모형과 대안모형의 AIC와 카이제곱차이 결과

모형	χ^2	df	P	AIC
기본모형(1)	29.663	3	.00	43.663
대안모형(2)	6.001	2	.05	22.001
모형1 : 모형2	23.662	1	.00	

용 상의 이유로 체중감량이 실제로 필요한 과체중, 비만과는 달리 정상체중, 저체중의 경우 체중감량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마르고 싶어 하며, 그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여대생집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조지숙, 1992; Fisher, 1986; White, 1992).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무분별하게 하다보면 신체, 심리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식증, 폭식증 등의 섭식장애이고, 이 중 폭식증은 절식과 폭식을 반복하면서 다이어트와 섭식장애의 악순환을 계속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체중감량이 필요하지 않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체형, 체중보다 더욱 마른 몸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들 중 성격적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고, 신체상 만족도는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고, 신체상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목표불안정성과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과민/취약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마른 몸을 원하는 정도가 신체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과 상관이 있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마르고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는 내현적 자기애, 특히 그 하위요인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 찬사를 받고 싶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길 바라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진로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더 날씬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실제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고 타인에게 있어서 날씬하다, 멋지다 등의 칭찬을 듣기를 바라며 신체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상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단계별 회귀분석을 사용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 내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에서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잘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신체상 만족도였고 두 번째로 예언력이 있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인정욕구/ 거대 자기 환상이었다.

이는 더 마르고 싶어 하고 더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또한, 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주목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더 마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곧 더 날씬해지고 싶어 하고 마른 몸을 선호하게 되는 성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함을 설명한다. 또한 신체에 대한 만족수준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아름답다, 날씬하다는 찬사를 받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마르고 날씬해지

고 싶어 하는 성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내현적 자기애 집단을 각 33%의 비율로 상, 중, 하 세 수준으로 나누어 그 중에서 중간 집단을 제외한 상집단과 하집단에 있어서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애 총합의 상집단과 하집단 사이의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내현적 자기애 상집단은 점수가 높은 집단으로 마르고자 하는 욕구도 높게 나왔고, 내현적 자기애 하집단은 점수가 낮은 집단으로 마르고자 하는 욕구 또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여러 특성이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며, 앞서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응적인 특성을 많이 지닌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Buuns & Gibbons, 1997; Rose, 2002; Talyor & Brown, 1988; Wink, 1991).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상, 하집단에 따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일정한 경로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에 의해 기본 모형과 대안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모형은 적합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안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신체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상 만족도가 다시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 중에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경우에는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인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주목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면이 신체에 집중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마르고 싶어 하고 다이어트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다이어트와 섭식장애 등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다이어트의 부작용인 섭식장애, 폭식에 초점을 두거나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불필요한 다이어트를 제거하기 위한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불필요하고 무리한 다이어트가 해로운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거나, 불필요한 다이어트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이어트에 몰두하게 하는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이뤄지더라도 심리적인 변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중 매체 등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원인이 주로 연구되었다.

즉, 이전 연구들은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격적 변인과 더 넓은 의미로서 성격구조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르고자 하는 욕구를 성격구조로서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련되어 살펴봄으로서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근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높은 마르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두 번째로,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취약한 측면을 많이 지니는데 그 취약한 특성 중 한 가지로 외모 콤플렉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과 체중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자신에게 향하는 부정적 지각과 평가의 원인을 부정적인 신체로 귀인하여 자기통찰이 힘들고 상담과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 특히, 타인과 비교 당하거나 자신이 주의를 끌지 못하고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신체로 모든 원인을 귀인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볼 수 없고 치료의 진전이 나타나기 힘들어진다(강상현, 1999). 이런 경우 날씬함 몸을 원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이렇게 체중과 체형에 지나친 관심과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상담 장면에서 나타났을 때 표면적인 문제인 체중, 체형, 다이어트에 대해 다루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인 성격적 구조에 대해 다룸으로써 성격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와 마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 오는 부정적인 측면의 치료에 모두 도움이 되는 등 더 폭 넓은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

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일정한 경로를 파악한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체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상 만족도라는 매개변인을 거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모 콤플렉스, 신체에 대한 집착이 높은 내담자를 상담하거나 치료할 경우에 치료과정에 대한 안내를 제시할 수 있다.

즉, 날씬해지는 것에 집착하는 내담자를 상담하거나 치료할 때 내현적 자기애라는 성격구조에 대한 치료적 접근으로 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내담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체상 만족도를 치료에서 먼저 살펴보고 다룬 다음, 내현적 자기애라는 근본적인 성격구조로의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상담 및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인 특성을 많이 가진다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만을 독립변인에 포함시키고 외현적 자기애는 제외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표현 양상에 따라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양가적인 자존감과 병리적인 웅대성이라는 핵심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고(한혜림, 2003), 자기애적 성격성향자들의 높은 자존감은 방어적일 가능

성이 있으며(Emmons, 1984; Raskin, Terry, 1988),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에 인정/거대 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이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NPI와의 공통요인으로 분류(강선희, 정남운, 2002)되었다는 점에서 외현적 자기와 마르고자 하는 욕구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여자 대학생만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는데,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신체에 대한 관심, 내현적 자기에의 성향이 여대생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여대생 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이어트와 섭식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으며, 과거의 여성들이 유독 외모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현대에는 남성들도 외모와 다이어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추세임으로 연구대상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연령대의 폭을 넓혀 연령대의 비교를 하는 것과,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여 남녀차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들은 모두 자기보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자기보고 방식에 의해 얻어진 설문응답은 응답자들이 방어적 태도로 응답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했을 수 있으며, 또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자료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기보고식 측정 외에, 투사적 검사나 개인적 면담, 혹은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다이어트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간과

한 것을 제한점으로 볼 수 있겠다.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중매체나 다이어트를 권장하는 시류를 볼 때 사회문화적인 부분은 다이어트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회문화적인 부분과 자기에 등의 심리적 변인의 상호작용이나 매개효과를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상현 (1999). 다이어트 심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에성 성격장애. 서울:학지사.
- 김교현 (1999). 청소년기 소녀들의 자긍심과 날씬함에 대한 집착 및 다이어트가 폭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155-165.
- 김희영 (1998). 다이어트를 하는 여고생 집단에서 완벽주의적 성향과 다이어트 실패경험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몰락을 매개로 하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순, 이현옥, 승정자 (1997). 일부도시지역 여대생들의 신체상과 섭식장애 및 영양섭취 양상, 지역 사회영양학회지, 2(4), 505-514.
- 안소연, 오경자 (1995). 폭식 행동 집단의 신체 불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29-40.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대인불만 및 방어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윤, 최정훈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21-47.
- 이현정 (2001). 섭식절제, 부정적 정서 및 충동성이 폭

-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HSNS)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감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미정, 정현희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한오수, 유희정 (1991). 식이절제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정신의학, 16, 21-28.
- 한혜림 (2003).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rooks-Gunn, J., Warren, M. P., & Hamilton, L. H. (1987). The relation of eating problems and amenorrhea in ballet dancer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19, 41-44.
- Buuns, B., & Gibbons, F. (1997). *Health, coping, and well-bing: perspectives from social comparison theor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Caroline, D., Gordon, C., & Debbie C. (1997). Personality factors and weight preoccupation: A continuum approach to the association between eating disorders and personality disorders. *J. psychiat. Res.*, 31(4), 467-480.
- Caroline, D., Gordon, C., & Debbie C. (1997). Reflection on narcissism: Conflicts about body-image perception in women. *Person. individ. Diff.* 22(3), 309-316.
- Cooper, P. J., & Taylor, M. J. (1988). Body image disturbance in bulimia nervos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3(supplment 2), 32-36.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Fairburn, C. G., & Wilson, G. T. (1993). *Binge eating: nature, assessment, and treatment*, (pp.193). New York: Guilford press.
- Fisher, S. (1986).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the Body Image, In Thomas F. Cash & Thomas Pruzinsky(de.), *Body Image*, New York :Guilford Press.
- Gila, A., Castro, J., Cesena, J., & Toro, J. (2005). Anorexia nervosa in male adolescents: Body image, eating attitudes and psychological trai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 221-226.
- Gilbert, N., & Meyer, C. (2003). Social anxiety and social comparison: differential links with restrictive and bulimic attitudes among nonclinical women. *Eating Behaviors*, 4, 257-264.
- Grigg, M., Bowman, J., & Redman, S. (1996). Disordered eating and unhealthy weight reduction practices among adolescent females. *Preventive Medicine*, 25, 748-756.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Powers, P. S., Schulman, R. G., Gleghorn, A. A., & Prange, M. E. (1987). Prevalence and

- cognitive abnormalities in bulim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1456-1460.
-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66-80.
- Robbins, S. B., & Dup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467.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Storz, N. S., & Greene, W. H. (1983). Body Weight, Body Image, and Perception of Fad Diet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15*(1), 15-18.
- Thompson, A. M., & Chad, K. E. (2002). The relationship of social physique anxiety to risk for developing an eating disorder in young fema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 183-189.
- Vander Wal, J. S., & Thomas, N. (2004). Predictors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and disturbed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in African American and Hispanic girls. *Eating Behaviors*, *5*, 291-301.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 (1995). Narcissism. In C. G. Costello (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 (pp. 146-172). New York: Wiley.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논문접수일: 2006년 12월 6일

수정논문접수일: 2007년 2월 10일

게재결정일: 2007년 2월 28일

Covert Narcissis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ody Cathexis on Binge Drive for Thinness

Dong-Joo Shin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covert narcissism,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he body cathexis affected the drive for thinness. 361 normal weight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the body cathexis scale, the drive for thinness scale, Data was collected. Various models which can explain relation among these variations are suggested and verified using path analysis and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body cathexis and several sub-elements of covert narcissism influenced the drive for thinness. Also the higher the levels of covert narcissism was, the much more being drive for thinness has increased. This results showed that the covert narcissism could influence the drive for thinness through the alternative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he body cathexis.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y were addressed.

Keywords : *Covert Narcissis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ody cathexis, drive for thinness, diet, path analysis*